



전남지역 농업유산의 국가농업유산·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초조사와 관리가 시급하다. 사진은 농업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담양 대나무숲의 모습.

/담양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더 늦기전에 ... '도시민 내 논 갖기'로 농업유산 보존을

농업유산 전남의 '오래된 미래'

9 과제와 전망

구들장은·녹차밭·산수유... 주옥 같은 농업유산

고령화로 농사 포기하고 유산 방치·훼손 심각

체계적 실태조사와 관리·보존방안 마련 시급

니카타현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후지노 히데오(62)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도쿄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27)에게 "내가 아프니 2달간만 농사를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휴가를 내고 아버지 일을 돕던 아들은 돌연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나섰다. 땅의 소중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농촌에 정착할 수 없다는 생각에 히데오씨는 아들에게 일부러 농사를 맡겼던 것이다.

이처럼 농업유산은 지역 농산물 판매량 증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도 크지만 고령화 현상을 빚고 있는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

◇보물 같은 전남의 농업유산=광주일보의 지난 6월 4일부터 연재한 기획물 '농업유산-전남의 오래된 미래'의 취재를 위해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을 시작으로 전남의 대표 농업 유산을 둘러봤다.

청산도 구들장 논은 물이 부족한 산자락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전통언덕에 쓰이는 널따란 구들장을 논바닥에 깔고 그 위에 흙을 부어 만든 선조의 지혜가 빛났다.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따로 수로를 만들지 않고, 논바닥 아래에 만들어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점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구조였다.

보성 차밭은 전국 녹차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답게 그 규모와 아름다움이 눈에 띄었다. 녹차 밭 입구의 삼나무 숲은 참 매력적이었고, 차밭을 따고 뒤는 등 고단한 일을 주민들이 나눠서 하는 자발적인 지역공동체가 형성돼 있는 것도 농업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요소였다.

담양 대나무숲은 한반도 대나무의 25.5%가 자생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1797ha)가 컸고, 죽순 등 다양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대바구니 등 죽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현재 담양에서는 200여 가구가 한 해에 대소쿠리 등 죽제품 53만점을 만들고 있어 농업 유산으로서의 가능성도 컸다.

화순 다랑이논과 붓도랑은 과거에 먹고 살기 위해 산비탈을 깎아 만든 논들이 있었고, 논에 물을 대기 위해 10km가 넘는 수로를 관 선조의 고단한 삶이 묻어 있었다. 차가운 계곡물을 긴 수로를 통해 온도를 높인 뒤 논으로 옮긴 지혜도 엿볼 수 있었다.

또 국내 최대 산수유 재배 단지인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재배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자체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했다. 산수유를 거두고, 열매를 채취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었다.

무안군 회산 백련지 또한 지난 2001년에 한국관 기네스북에 백련 집단서식지로 등재될 정도의 규모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연꽃을 활용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협 등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내는 등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뒤따르고 있었다.

◇더 늦으면 볼 수 없는 것들=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소중한 농업 유산도 방치되고 있었다. 전남지역 대부분 농업 유산은 일부 허물어지거나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밭으로 변하는 등 훼손된 곳이 많았다.

또 농사를 포기하는 대신, 돈이 되는 소나 돼지를 키우고 건물을 짓는 곳도 있었고 아예 나무와 풀이 무성해 접근조차 힘든 곳도 숭했다. 또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에 대밭과 차밭 등 비슷한 형태의 농업유산이 많다는 점도 전남지역 농업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것은 농업 유산의 보존이었다. 청산도 구들장은 이미 마들밭으로 변한 곳이 많은 실정이다. 벼농사보다 마늘을 심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논이 밭으로 변하면서 구들장의 특성도 사라져가고 있다.

화순 붓도랑과 다랑이논은 이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곳이 많다. 이곳에는 축사와 건물이 들어서고, 편의에 따라

흙을 파 여러 개의 논을 하나로 만드는 등 옛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보존을 위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 이들 농업유산은 일선 군청에서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정확한 실태 조사조차 못하고 있다. 이들 농업유산 대부분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도 지정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모와 역사, 현재 상태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과정에 중요한 절차다.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따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은 이 때문에 중요하다. 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방법밖에는 없다. 일본 노토반도 계단식 논은 해마다 논을 분양하고 있다. 300여 개 단체와 개인이 계단식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계단식 논에는 농사를 짓는 단체나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 말뚝이 세워진 곳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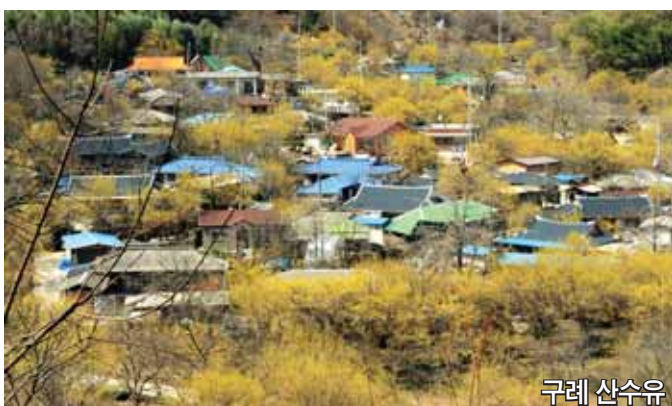
노토반도 인근의 노토초는 2010년 현재 고령화율이 36.9%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시민들에게 농업유산을 분양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토반도의 계단식 논이 보존되고 있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낡고 버려진 것으로 치부됐던 전남의 농촌 들관과 마을은 후세에 물려줘 할 소중한 유산이다. 노토반도를 지키기 위해 차로 7시간을 달려 농사를 짓고 있는 일본 도시민들의 노력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구례 산수유



청산도 구들장논



무안 회산백련지



화순 붓도랑